

스타벅스 “우유값에 웃고 울고..”

우유 가격 하락 덕을 톡톡히 본 스타벅스가 이제는 오름세로 돌아선 우유가격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10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에 따르면, 연초 하락세를 보이던 우유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스타벅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유 가격은 지난 2008년 들어 줄곧 하락추세를 지속, 올해 초까지 수년만에 최저치로 내려앉기도 했는데, 이는 스타벅스의 실적에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UBS는 지난해 10월~2009년 9월의 스타벅스 순이익이 주당 77센트를 기록했는데, 이 중 5센트가 우유 가격 하락 효과 덕분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우유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우유가격이 상승세로 전환, 스타벅스의 수익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유 선물 가격은 지난 2007년에는 100파운드당 21달러를 웃돌았지만, 올해 초 10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이것이 최근 들어 13달러 수준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문을 닫는 우유 농장이 늘어나면서 우유가격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스타벅스의 수익성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타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유 가격이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스타벅스는 주당 몇 센트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유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커피 시장임을 감안하면, 가격을 올

리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는 길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U, 낙농가 시위에 ‘굴복’ ‘지원 불가’ 원칙 접고 2억8000만 유로 수혈

우유, 버터 등 유제품 가격 파동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낙농업자들의 거둬드는 시위에 유럽연합(EU)이 결국 지갑을 열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피셔 보엘 EU 농업·농촌개발 담당 집행위원은 10월 1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집행위가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2억8000만유로(약 5000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엘 집행위원은 “내 주머니(예산)를 털겠다. 낙농가에 줄 돈으로 2억8000만유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엘 집행위원은 그동안 낙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불가, 2015년 우유생산 쿼터제 폐지에 대해 강경하게 원칙론을 펴왔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압박하자 끝내 항복했다.

2억8000만유로가 어떠한 형태로 낙농업자들에게 지원되고 국가별로 어떻게 할당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간 시위를 벌여온 낙농단체들은 재정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2015년 폐지되는 우유생산 쿼터제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제품 가격 파동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

자료출처 : www.cattlenetwork.com, 일본 해외농축산정보 등